VOICEYE
KOR
voiceye.com

2015 July
vol. 180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노래

04
테마기획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공연, 귀로 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을 소개합니다.

06
인터뷰
점자와 음악으로 희망을 선물합니다.
작은 거인 김현구 선생님

08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당뇨병성 망막증
월드 리포트
: 어둠이 가득한 레스토랑, 기자니(Gizani)

09
함께 사는 이야기
필리핀 팍상한 폭포와 방카 사공의 거친 숨소리
탁노균(시각1급_대구광역시 중구)

10
포커스
한국과 중국의 점자악보 교류!
시각장애인의 음악 출판물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11
뉴스앨범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정책방송원, 업무협약 체결
2. 헤드폰으로 소리를 나눠요!
3. SK네트웍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섭니다.

12
안내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7월 180호

발행일 2015년 7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voiceye.com

무더운 여름,
바닷바람을 맞으며 듣는 파도소리는 잔잔한 노래처럼 들립니다.
노래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노래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공연,

귀로 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을 소개 합니다.

어두운 무대 위, 관객들을 사로잡을 멋진 공연을 위해 배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시각적 장벽을 허문 배리어프리 공연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리어프리 공연 '당신만이'

1. 배리어프리 공연 '빨래' 2. 7월 18일 공연 예정 '홀연했던 사나이 포스터' 3. 배리어프리 공연 '당신만이'의 시각장애인 배우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의 허물어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유명 배우들과 관련 영화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에 힘입어, 배리어프리 공연도 하나 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배리어프리 공연은 어떤 형태로 제작되고 있을까요?

배리어프리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을 보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른 형태로 변환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시각장애인 배리어프리 공연은 적절한 해설과 음향을 삽입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음성화하여 각색한 낭독 공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 해설자의 차분한 해설과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대사가 공연의 흥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무대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연기를 하지만 극의 중간 중간 소품을 활용하거나 무대를 돌아다니는 등의 동작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2014년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연극제 최초로 연극협회에서 선정한 연극제 공연물 중 한 편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재창작한 연극이 공연된 것입니다.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FM수신기(무선 음성 수신 장치)를 통해 음성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배리어프리 공연장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아마추어 배우가 함께 공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시각장애인은 현역 배우에게 트레이닝을 받은 후 공연에 참여하여 함께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많은 배우와 기업 등의 관심과 후원으로 꾸준히 제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리어프리 공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콘서트 등의 장르에서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 스튜디오 뮤지컬

점자와 음악으로 희망을 선물합니다.

작은 거인 김현구 선생님

재능기부라는 말을 아시나요?
재능기부는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능기부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김현구 선생님은 28년째 자신이 가진 점자에 대한 지식과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현구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시각장애인 재소자들을 위해 점자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1988년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맹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청주교도소의 시각장애인 재소자에게 점자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으셨지요. 청주교도소의 교도관님도 함께 오신터라 흔쾌히 요청에 응했습니다. 당시에는 '몇 번 하다 말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재소자들과 함께 하게 되셨나요?

재소자들은 대부분 배움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수감기간 중 중도에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자 교육이 필요한 재소자들은 계속 생겨났고 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돕기 위해서는 점자 교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어있는 교도소가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교도관을 옆에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나 난폭했던 시각장애인 재소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경험을 하며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나중에는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재소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지금은 수감생활을 마치시고 김해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으신데 수감 중 중도 실명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얻게 되셨습니다. 점자교육을 진행하며 교도소 안에서 나름대로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TV 프로그램 출연도 하셨는데요.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주맹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는 것도 몰랐을 때지만 피아노의 영롱한 소리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처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가득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주맹학교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음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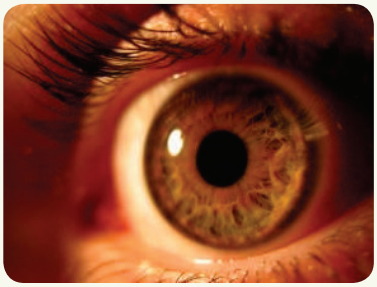
네. 재소자들이 특히 제 피아노 연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는 날이면 종종 음악실로 자리를 옮겨 피아노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점자를 가르치는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한 재소자가 사회에서 떳떳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시각장애의 원인

당뇨병성 망막증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병이라 불리는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성 망막증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서구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이 실명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비증식성과 증식성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인 경우 초기에 망막에서 정맥의 확장과 소혈관류 현상을 보이고 망막 출혈 및 삼출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식성은 신생혈관이 자라는 질환으로 섬유성 증식이 일어나고 조금 더 진행되면 망막분리, 망막박리까지 동반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망막증의 정도는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초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망막증이 나타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의 정도와 망막증의 정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 할지라도 중심 시력과 관계있는 중심와에 장애가 없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월드 리포트

어둠이 가득한 레스토랑, 기자니(Gizani)

지난 5월, 케냐에 어둠이 가득한 레스토랑 '기자니'가 오픈했습니다. '기자니'는 2004년 파리에서 처음 오픈한 '어둠 속에서'(Dans Le Noir)'의 아프리카 분점으로 어둠 속에서 음식의 향과 맛을 즐기며 식사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웨이터 12명은 모두 시각장애인인데요. '기자니'에 방문한 손님들은 웨이터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로 이동하고 식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눈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기자니'의 한 웨이터는 "난생 처음 월급을 받게 되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는 취업 소감을 밝혔는데요. 케냐에서는 레스토랑 '기자니' 오픈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낮은 장애인 고용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voiceye.com KOR VOICEYE

필리핀 팍상한 폭포와 방카 사공의 거친 숨소리

탁노균(시각1급_대구광역시 중구)

2012년 볼링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어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였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니 오늘은 특별훈련을 할 거라고 말했다. 폭포에 가면 물을 뒤집어 쓸 테니 갈아입을 옷만 챙겨 나오라고 했다. 이건 관광이 아니고 훈련의 일환이라고 했다. 두어 달 전이었던가? EBS방송에서 필리핀 방카사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었다. 극한직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내겐 행운이었다. TV에서 보았던 그 방카를 타고 폭포에 간다니!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가슴에서 퐁퐁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스타렉스의 좁은 좌석에 앉아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우리는 팍상한 강의 하류에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랜만에 입맛에 맞는 밥을 먹었다. 가방이나 소지품들을 보관함에 넣고 함께 배에 탈 조를 나누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플라스틱 모자를 썼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간 슬리퍼를 신었다. 더운 나라에서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오기 전에 마트에서 만원 주고 사왔었다. 그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내의 잔소리에도 꿋꿋이 사 온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조별로 배에 올라탔다. 카누처럼 길게 생긴 배인데, 통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든 배라고 한다. 그들은 그 배를 '방카'라고 불렀다.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뱃사공이 각자 하나의 노를 들고 타고 중간에 세 명이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를 달렸을까? 민가도 보이지 않고 강물의 흐름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니 발동선이 멈추고 방카들을 매달았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드디어 강 상류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앞뒤에 앉은 뱃사공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방카는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점점 심하게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너럭바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폭포를 향해 다시 올라갔다. 이미 배 안으로 들어온 물에 바지는 흠뻑 젖어있었다. 병풍처럼 우뚝 서 있는 바위들 사이로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우리를 실은 방카는 사공들의 가쁜 숨결과 즐거움인지 무서움인지 알 수 없는 비명소리와 함께 조금씩 폭포를 향해 다가갔다. 몇 번의 스릴이 있은 후, 갑자기 차가운 물보라가 엄습해왔다. 얼굴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팍상한 폭포 앞에 도착한 것이다. 높이가 90여 미터가 넘는 자연이 만들어낸 웅장한 작품이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팍상한 폭포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로 갈아타야 했다. 종아리 굵기 정도의 대나무로 만든 뗏목이었다. 뗏목에 10여 명이 올라앉았다. 앞에서 뱃사공이 뗏목을 끌고 가는데, 얼마가지 않아 뗏목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두들 놀랐지만, 이미 허리까지 물속에 잠겨버렸다.

한바탕 폭포수를 맞고 난 뒤 뗏목은 밖으로 나왔다. 우리 앞에 먼저 도착한 일행들은 몇 명 타지 않아서 폭포 내부에 있는 동굴도 구경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너무 많이 타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 '악마의 동굴'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동굴에는 불상이 놓여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쏟아지는 폭포수를 뚫고 들어가 소원을 빌기도 하는 모양이다.

물살이 느려지는 강 상류에 도착하니 발동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공들도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폭포에서 나를 안내하던 뱃사공은 나이가 28세라고 했다. 계곡을 거슬러 온몸으로 부딪치며 사는 그들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 막상 그들의 힘겨운 모습을 보고나니 애틋하기도 하고, 가여운 생각도 들었다.

두 시간 반이 넘게 방카여행을 하고 선착장에 돌아왔다. 이름도 모르는 뱃사공의 노고에 고마움을 보내고, 늘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그들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 차에 지친 나의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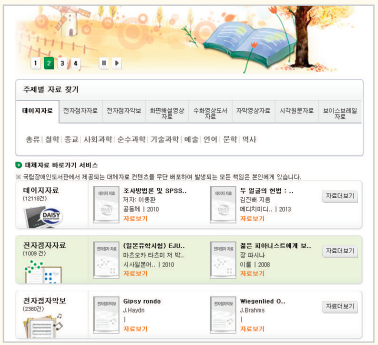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점자악보 교류!

시각장애인의 음악 출판물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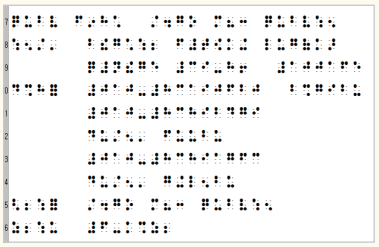
지난 6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점자악보 메뉴에 110개의 악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 및 조약 비준에 앞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중국점자도서관이 전자점자악보 상호교환을 추진한 덕분인데요.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전자점자악보 1268건이 중국점자도서관에 전달되었고, 중국점자도서관 소장의 전자점자악보 220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중 110건을 6월 15일부터 국내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록과 곡의 설명 등은 중국어 점자로 제공되어 독해가 쉽지 않지만 악보의 음표 및 기호를 나타내는 점자는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국내의 점자악보를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중국점자도서관에서 제공한 전자점자악보는 쇼팽(Chopin)의 대왈츠(Grande valse billante Op.18),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위로(Consolation No.3) 등의 피아노 독주곡들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중국점자악보를 서비스하며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자악보를 제작,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출판 자료가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홈페이지


하이든 – 집시 론도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 http://nlid.nl.go.kr

KOR VOICEYE
voiceye.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정책방송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정책방송원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 주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방송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에 힘을 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각장애인 방송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01.

02. 헤드폰으로 소리를 나눠요!

국내 대표적인 이어폰 · 헤드폰 전문기업인 크레신 주식회사에서 창립 56주년을 기념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헤드폰을 기증하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깨끗한 음질을 자랑하는 2종류의 헤드폰을 각각 100대씩 기증하였는데요. 본 기증식에 참여한 크레신 주식회사 전략마케팅부 이태윤 이사는 이번 헤드폰 기증이 시각장애인과 소리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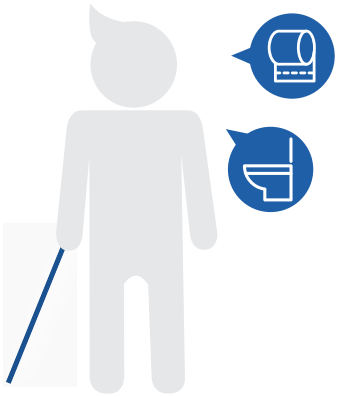
03. SK네트웍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섭니다.

6월 17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SK네트웍스와의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SK네트웍스는 2012년부터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시각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경제적 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SK네트웍스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함께할 활동이 기대됩니다.

03.

voiceye.com VOICEYE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공공장소에서 화장실(물 내림 스위치와 휴지걸이의 위치 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때, 내부의 간략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기둥 등에 부딪히지 않게 안내하시고, 기물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이 덜해 집니다.

시각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힘든 점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니라 거리 감각이나 위치의 낯섦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구조에 대한 설명 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www.kbuwel.or.kr